

전남교육청,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위해 힘모아

맞춤형 기초기본학력 보장,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다각적 정책 추진 김대중 교육감 “작은 학교 장점 살린 매력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 미래교육의 기반인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7일 김대중 교육감의 신안 교육현장 방문 자리에서 △ 맞춤형 기초기본학력 보장 △ 특색 교육과정 운영 △ 다문화 강점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한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학교 교육의 기본 바탕인 학생 기초기본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습·비학습적 요인을 파악해 인공 지능(AI) 온라인 콘텐츠 및 통합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산어촌 작은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은 학교(섬 학교) 박람회 운영을 통해 전남형 작은학교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작은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도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다양화와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해 더욱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문화학생 비율(전체 학생의 5.8%)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력과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 다문화 가정 엄마들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 △ 다문화 가정 엄마 나라 탐방 프로그램 △ 지역 단위 이중언어 강사 양성 △ 다문화가정 통합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운영하는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

진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중교통’의 이름으로 2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27일 신안 지역을 찾아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신안교육지원청에서 일일정책회의를 주재한 후 오후에는 신안교육지원청 새 청사 이전 부지를 둘러보고 압해동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공동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마을학교 활동가들과 함께 한 압해동초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전남 최초로 지자체 연



계형 ‘학교돌봄터’ 사업을 진행하는 압해초등학교 및 여타 지역의 마을학교 운영 사례들을 공유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도서지역 학교 간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 강화, 농산어촌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에 대한 제안과 요청이 이어

졌다. 김 교육감은 “이제는 모두가 돌보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으로 매력적인 작은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 상일여고, ‘카네이션 장학금’ 수여식

교사 기부 장학금, 인성과 실력 향상 위해 노력한 학생 발굴

상일여고가 26일 오전 10시 제13회 졸업식과 종업식을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카네이션 장학금’ 수여식이 포함됐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카네이션 장학금은 교사들이 1년간 기부한 성금으로 조성됐다. 올해는 30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은 총 2명이다. 이들은 평소 자신의 품행을 바르게 하고 더 나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었다.

인성 부분 장학금을 받은 이성화 학생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주신 장학금을 받아 정말 영광스럽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이므로, 실력과 인성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성금 조성에 앞장섰던 윤형문 교사는 “세상 어디에서도 카네이션 꽃처럼 은은하게 자신을 드러낼 만한 학생들이 선발된 것 같아 기쁘고, 이들의 성장에 작게나마 도움을 준 것 같다”라며 수상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광주상일여고 이성철 교장은 “이 장학금은 2010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올해 졸업식과 같은 해수 동안 실시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크게 넉넉하지 않지만 교사들의 제자 사랑의 정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며 “상일여고는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교육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순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마음난로’라는 주제로 운영

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마음난로’라는 주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알차게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정적인 활

동과 동적인 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특수체육과 미술 오감 놀이를 하며 감각통합 및 신체운동을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전래 놀이를 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제과·제빵을 하며 집중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점핑운동, 생활요리, DIY공예 등 움츠린 몸을 활짝 펴고 신체활동을 통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유익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소질과



진로를 파악하고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영암교육행정협의회, ‘2023. 영암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영암교육지원청과 영암군청은 지난 27일 희망 영암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교육현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2023.

농산어촌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및 영암미래교육관 설립 방안 논의

영암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영암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산어촌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에듀팜, 권역 커뮤니티센터 활용)을 통한 농산어촌 유학사업 활성화, 영암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예술(씨름, 바둑, 가야금) 계승

할 미래인재 육성, 지역교육공동체의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영암미래교육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청년 친화정책과 교육은 지향하는 바가 같은 한 축으로서 영암군에서는 교육 때문에 영암을 떠나지 않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상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